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며 손을 드옵소서”
인터폴 ‘동남아 인신매매 기반 범죄단 연수익 3조 달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동남아시아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조직이 연간 벌어들이는 범죄 수익 규모가 약 3조 달러(약 4,045조 원)에 달한다고 인터폴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일부 국제 범죄단체의 연간 수입이 500억 달러(약 67조 원)에 이르며, 매년 2-3조 달러의 불법 자금이 국제 금융시스템을 통해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른 프랑스 경제 규모인

3조 1천억 달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스톡 사무총장은 조직범죄 수익의 40% 이상이 마약 관련 수익이며 인신매매, 무기·장물 거래 등도 주요 수입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익명성에 기인한 활동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러한 범죄 조직들이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시작된 사이버 사기 범죄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만 2021년 이후 34개국에서 3,500건 이상의 체포 사례가 있었고, 3억 달러가 넘는 불법 자금이 압수됐다. 아시아 전역의 피해자들은 주로 취업 사기를 당해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진다. 이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거나 임의적 구금, 부당 대우 또는 고문을 당하게 되며, 대부분 현지 당국의 도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에서 10만 명 이상이 범죄 기업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800명 이상이 온라인 사기 센터에서 구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기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수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출처: 기독교일보, CNN 종합).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며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시편 10:2,12,15)

하나님, 탐욕을 따라 악을 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아시아의 범죄 조직들을 주의 손을 들어 엄히 징계하시라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반드시 모든 악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주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소서. 사기와 인신매매로 잡혀가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 은혜를 베푸사 구출되게 하시고,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완전한 공의를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한국, 제22대 총선 차별금지법 발의 국회의원 10명 당선

제21대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10명이 지난 10일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11일 기독교일보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차별금지법안'을, 이상민 의원 등 24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박주민 의원 등 13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권인숙 의원 등 17인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4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총 37명으로 이들 중 이번 총선에서 10명이 당선돼 약 27%가 새 국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하는 길원평 교수(한동대. 진평연 집행위원장)는 "(평등법안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이 당선돼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지만 그런 법안이 발의돼도 교계 역시 이전처럼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기도하고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에베소서 6:13-14,18)

하나님, 동성애 지지자와 반대자 중에서 반대자만 처벌받는 것을 평등이라 우기며 철저하게 반대자를 역차별하는 나쁜 법안이 이 땅에서 법으로 지지받지 않도록 주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소서.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10명의 당선자와 22대 국회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국민들의 표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진정 나라를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의 성벽을 쌓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전쟁을 준비하여 악한 날에 복음으로 능히 대적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 미국 청년단체, 릴레이 부흥집회서 7개월간 1,000여 명 결신

미국의 한 청년 사역 단체인 '유나이티드'가 공립대학에서 릴레이로 부흥 집회를 열면서 7개월 만에 1,000여 명이 결신하는 열매를 맺었다고 폭스뉴스 등을 인용, 국민일보가 11일 전했다. 지난 3일 조지아대학 인근 대형 체육관에서 유나이티드가 개최한 부흥 집회에 8,000명이 모였고, 이 중 150여 명이 개조 트럭에서 침례를 받았다.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9월 앨라배마주 오번대학을 시작으로 2월 플로리다주립대, 3월 앨라배마대 등을 돌며 비슷한 집회를 열었다. 설교와 찬양, 간증 주를 이루는 집회에 평균 수천 명이 참석하고 200-300명이 침례를 받았다. 유나이티드는 학생이 현장에서 결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역교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유나이티드 설립자인 토냐 프루이트는 "수백 건의 세례는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며 "학생들이 진리와 희망에 굽주려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서 12:1)

하나님,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미국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크셔서 청년들에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부어주시고 부흥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집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주께 드린 청년들의 고백을 기억하사 이후의 발걸음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선교완성을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복음으로 강권하시는 주의 선한 능력이 열방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심각한 경제난으로 도둑 증가...암하라 지역 내전 상태는 여전



아프리카 동부의 에티오피아에서 가뭄과 내전 등으로 수백 명이 굶어 죽는 등 빈곤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강도와 도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에티오피아 복음기도신문 통신원에 따르면, 최근 서북부 지역 암하라의 K 지역의 한 교회에 4명의 강도가 침입,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핸드폰과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의 주택에 방범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마을의 순찰대를 고용하고 있다. 통신원은 “이곳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도둑이 없었던 동네였다”며 “이제는 주일에 조금 한적한 곳에 있는 교회로 어린아이나 여성이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하라 지역은 군과 민병대의 무력 충돌로 내전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도로가 차단 되면서 암하라 지역 시외버스 회사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며 “남쪽에 비해 물가가 월등히 올라 생활이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도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에티오피아는 지난해 12월, 3,300만 달러(약 430억 원)의 이자를 지불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데다, 특히 북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가뭄과 식량난에 내전까지 겹치고, 최근에는 돌발 홍수까지 일어나 국민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태다.

BBC방송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당국은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 있는 에다가 아르비 마을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200명 이상이 아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유엔본부의 인도주의 구호기관들은 에티오피아 북부 지방에 1,700만 달러(226억 4,400만 원)의 긴급 구호기금을 방출했다.

한편, 암하라주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정부의 민병대 해체 시도에 반발해 폭력 시위 등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8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이후 현재까지 연방 정부와 암하라 파노 민병대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통신원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이미 연방 군인들에게 민병대와 교전 시 거리에 수상한 자가 보이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럽 내 에티오피아인들은 성명을 통해 아비 연방 정부가 암하라인들을 제노사이드(대량학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이사야 10:2,20-21)

하나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식량난과 가뭄이 이어지는 이때 도둑까지 기승을 부려 고통을 당하며, 끝나지 않은 내전으로 빛을 잃어가고 있는 에티오피아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낙심할 만한 상황에 놓인 이곳을 세계가 주목하여 돕게 하시고 연방 군인에게 내려진 제노사이드가 멈춰질 수 있도록 생명을 도둑하려 하는 사탄의 간계를 멸하여 주소서. 주를 의지하는 교회의 생명을 건 기도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얻어 영과 육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수단, 내전으로 아동 1,000만 명 폭력 노출

내전 발발 1년을 맞는 수단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폭력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과 분쟁 감시단체 '무장 분쟁 위치 및 사건 자료 프로젝트'의 분석에 따르면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 지난해 4월 첫 달에 이미 아동 669만 명이 폭력에 노출됐으며 이후 1년간 수단 전역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전쟁에 동원되거나 성폭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단의 난민 820만 명 중 절반에 달하는 400만 명이 아동이다. 아동 280만 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수천 명은 질병으로 사망할 위기에 처해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역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시편 146:5,7)

하나님, 내전으로 영양실조와 질병이 더해지고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전쟁의 공포로 어린 심령에 한숨이 가실 날 없는 수단 아동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고 두려움에 맞설 용기도 부족한 이들에게 주께서 참 부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로서의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인간의 탐심으로 인한 분열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에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사 사탄의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 되는 자유의 땅 되게 하소서.

▲ 미얀마, 강제 징병제 발효 후 첫 군사훈련

군부 독재의 미얀마에서 올 초 징집법이 발효된 후 전국 군기지와 학교 등에서 신병들의 첫 군사훈련이 시작됐다고 9일 관영 언론들을 인용, 뉴시스가 전했다. 훈련 입소식이 문, 산 주 및 타나타이, 마그와이 및 만달라이 지역의 다수 지회소와 군사 학교에서 진행됐다. 징집법 발동에 청년들과 그 부모들은 두려움과 걱정, 저항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나라에서 탈주했으며 또 일부는 소수계 장악의 국경 지역으로 도망하거나 저항 단체에 합류했다. 법에 따라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은 징집되어 2년간 복무해야 한다. 군부는 총인구 5,600만 명 중 약 1,400만 명의 남녀 젊은이들이 군 복무 자격이 있으며 한 번에 5,000명씩 징병해 1년에 최대 6만 명을 끌어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집 회피는 3-5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당하게 된다.

아비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고 청년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고 아비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고 청년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요한일서 2:13-14)

하나님, 반군 공세에 고전 중인 미얀마 군부의 무리한 강제 징병과 군사훈련으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강포와 억압을 휘두르며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군부와 이로 인해 저항하거나 염려하는 국민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사 진정한 승리를 십자가로 가르쳐 주십시오. 미얀마 교회가 믿음으로 함께 싸워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하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영혼 안에 거하여 주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외치는 것발 든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화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벽돌가마 공장 노동자 대상으로 복음 전파...무슬림 주인들이 회심하기도**



파키스탄 경제의 기초산업으로 여겨지는 벽돌가마 공장에 한 선교단체가 복음을 전하며 다양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미션네트워크가 최근 소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국에 1만 4천여 개의 벽돌가마 공장에서 45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성경배포 선교단체 ‘언노운 네이션즈’(Unknown Nations)의 그렉 켈리(Greg Kelley)는 이 벽돌가마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현재 이 가마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족들의 생활비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가족 전체가 노예처럼 살아가기도 한다.

이 같은 고용 형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정치인들은 종종 뇌물을 받고 가마에서 일어나는 장기 적출과 가마 노동자의 아동 인신매매 등 범죄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켈리는 이 벽돌가마 공장의 주인에게 약 2,500달러를 지불하면 하루 동안 노동자들의 자유를 살 수 있다. 이때 켈리와 팀원들은 가마공장 노동자들에게 식사, 휴식 시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켈리는 “그들이 쉬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며 “우리가 공장에 들어갈 때는 항상 복음을 전한다. 많은 노예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 희망의 메시지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모임이 열리면 그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무슬림이었던 가마공장 주인들이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의 행동이 바뀌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을 알게 되면서 일어난다. 켈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이자 영향력”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들은 가마공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가마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가운데, 새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켈리 팀이 남긴 오디오 성경의 도움을 받아 다른 가마 노동자들을 제자로 삼게 된다. 현재 파키스탄의 곳곳에서 이슬람 세력은 종종 기독교인에게 개종 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켈리는 벽돌가마 공장에서 형성된 끈끈한 공동체 덕분에 제자 양육에 성공할 수 있었다.

켈리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벽돌가마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 노예가 된 이들을 제자 삼는 일에 더 동원되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열악한 선교지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이곳에 보내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화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누가복음 1:78-79)

하나님,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파키스탄의 벽돌공장 노동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취주시고 무슬림이었던 가마공장 주인들까지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소서 복음의 생명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걸음 되게 하소서. 이 땅을 섬기는 교회와 단체가 거룩한 통로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찾아갈 뿐 아니라 진리의 교훈으로 파키스탄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모잠비크, 콜레라 피해 탈출 선박 침몰...91명 사망

모잠비크 북부 해안에서 콜레라를 피해 탈출하던 현지 주민들 130명을 태운 선박이 전복돼 91명이 숨졌다고 7일 AFP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모잠비크 섬의 하이메 네투 장관은 “배가 승객으로 초만원에 이르는데다 어선을 개조한 배의 상태가 승객을 태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침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탑승객 대부분이 콜레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공포 때문에 모잠비크 본토에서 탈출하려 했다고 말했다. 인구 약 3,000만 명 가운데 3분의 2가 빈곤층인 모잠비크에서 지난해 10월 이후에만 1만 5,000여 건의 콜레라가 발병해 3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해부터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등 남부 아프리카에서 콜레라가 창궐해 2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사망자도 3,000명 이상 보고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시편 115:10)

하나님, 콜레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자국을 떠나려다 큰일을 당한 생존자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창궐하는 전염병을 잠잠케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엘리뇨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깨끗한 물을 찾기 힘든 남아프리카에 겸손한 마음을 주사 능력이 크신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두려움과 압박을 토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예수 생명의 가치만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 해외 북한 노동자들, 노동력·자금 착취로 탈북 고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력 및 자금 착취로 인해 탈북을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8일 전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A씨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중순 돌연 ‘노동자들을 들여보내지(귀국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이에 따라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노동자들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심지어 간부들은 몸이 아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계획금은 곧 뵈”이라면서 매달 650달러씩 거둬가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러나 사장이나 당비서 등 간부들이 거주비나 회사 경영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착취해 가면서 그 돈으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쓰고 있어 노동자들이 탈북을 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A씨는 지적했다. 그는 “조국에서 떠날 때는 (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순간에 변하게 된다”면서 “처음부터 (탈북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사장과 당비서들의 행태 때문에 그 길(탈북)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잠언 3:14-15)

하나님, 북한 당국과 간부들에게 이용당하여 영육 간의 곤고함으로 나라에 대한 마음이 돌아선 해외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보화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소서. 상황과 조건을 타고 들어온 죄를 기회 삼아 탐심으로 자신의 배만 가득 채우는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을 엄히 꾸짖어 주시고 미련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해외 노동자와 북한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게 하소서.